**세미프로젝트 소감문** ( 제출일: 2023.03.20 월)

4팀 팀장 한아현

프로젝트 기간동안 대부분의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쉬울 것 같았던 게 어렵고, 어렵게 느껴지던게 쉽게 풀리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계획한 일을 절차에 따라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일을 다루는 일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 순간 생기는 새로운 과제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이 힘든 만큼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클래스를 처음 설계할 때는 직접 프로그램 하나를 구현해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이론 위주로 공부하면서

"아직 나는 부족하니까 더 공부한 다음 만들어야지" 하며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구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료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꼼꼼한 성격때문에 종종 비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지나치게 긴 시간을 소요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시간을 더 내서 성격대로 처리하곤 하는데,

기한을 두고 팀과 함께 목표 달성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매 순간 어느 정도를

타협하고 포기할 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록 시간이 부족했고 정해진 과업은 마쳤지만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팀장으로서, 업무가 후반부에 몰리며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코드 작성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미리 고민하고, 기간 별 목표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팀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고민하면서 좋은 리더,

팀원의 자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팀장 회의와 강사님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팀장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지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식을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초반에 스스로 코드 구현하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었고

먼저 지시하거나 의견을 내는 일이 줄어들어 팀 전체의 소통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라도 적극적으로 의견 내고 대화해야한다는 강사님 피드백을 통해 상황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쉽지 않았는데 과감하게 시도하고 실패하는 경험이 생각만큼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잘 수행 해 준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장점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단점은 잘 보완해준 팀원들 덕분에 기한 안에

무사히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좋은 팀원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